

## 中國 東北部 諸民族의 住居 및 住生活 특성\*

-黑龍江星과 內蒙古自治區에 거주하는 다워얼(達斡爾)족을 중심으로-

### Features of Housing and Living Pattern in the North Eastern Regions of China

- Centered on the Daor living in the Heilongjiang -

신수영\*\* · 윤정숙\*\*\*

Shin, Soo-young · Yoon, Chung-sook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living pattern of the Daor and to make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Han race. This research inquired into the background of the Daor and surveyed the present condition of traditional hous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eatures of Daor's traditional house is synthesized as follows. 1) The arrangement of village is in a row facing south. The site plan and exterior shape is like as the Manchurian race. 2) Making west window and creating a bright atmosphere is the unique architectural style. 3) Viewed from spatial layout and function, Daor's has more remarkable difference from Han's. That is to say, the room equipped with Kang is daily space and kitchen is just space for cooking in contrast with the Han.

키워드 : 다워얼족, 주생활, 강

Keywords : Daor, living pattern, Kang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의 북방 지역은 만리장성 이북지역을 가리키며 대흥안령(大興安嶺)산맥을 중심으로 동북과 서북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북방지역의 민족들은 대부분의 남방민족처럼 중국인으로 동화되기를 기다리는 단순한 이민족이 아니었으며, 항상 중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힘으로 작용해 상

당기간 전 중국을 통치하는 통일왕조를 이루기도 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문화의 번영기와 쇠퇴기를 맞이하면서 북방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문화 형태를 만들어 갔다.

그 중 동북지역<sup>1)</sup>의 생활양식은 대부분 유목을 위주로 하는 서북지역의 그것과 비교하여 다양하다. 특히 경제적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을 위주로 하는 동북평원 지대, 어업과 양식업을 위주로 하는 요녕성 남부 연해안 지대, 수렵과 임업을 위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DS2501)

\*\* 정회원, 연세대 대학원 석사과정

\*\*\* 정회원,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학술박사

1) 동북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요녕성(遼寧省), 길림성(吉林省), 흑룡강성(黑龍江省)과 내몽고자치구를 포괄하는 지리적 단위이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만주(滿洲)'라는 용어와 대략적으로 그 범위가 같다.

주로 하는 동북 산악지대, 유목을 주로 하는 대홍안령 산맥의 안쪽 초원지대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지역에 따른 다양한 경제구조만큼 문화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동북지역의 특수한 자연지리, 인문환경 그리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생산력·생활방식 등은 남방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특유의 품격과 인문정신을 양성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과 함께, 중국 동북 지역의 소수민족<sup>2)</sup>은 언어학적으로 알타이어계<sup>3)</sup>에 속하며 한(韓)민족과 어족(語族)상으로 깊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역사상 이 지역이 고구려의 지배권 안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중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재고하기에는 중원지역보다도 그 중요성이 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동북지역 소수민족의 '거주문화'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 연구의 일부분으로 동북지역 소수민족 중 다위얼(達斡爾)족의 주거 및 주생활 특성을 보고한 것이다.

## 1.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1)다위얼족 주거의 건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통시적 관점에서의 주거 유형의 변천과 한족(漢族)을 비롯한 타민족 주거와의 차이점 및 영향관계를 고찰하고, 2)동시에 주생활 조사를 통해 현재 다위얼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에서 행위가 주거 공간에 어떻게 투영되었으며, 그에 의한 공간의 구성과 이용 형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 2. 조사개요

### 2.1. 조사 지역과 조사 시기

조사 지역은 중국 현지조사는 2003년 7월 6일부터 2003년 7월 2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

2) 현재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단기적인 체류가 아닌 동북지방을 세거지(世居地)로 하는 민족은 한족을 포함하여 11개 민족이다. 그 중 스스로 동북지방을 민족의 발상지로 주장하는 민족은 만족, 몽고족, 시버족, 다위얼족, 어룬춘족, 어원커족, 허저족, 조선족 등이다.

3) 알타이어계는 크게 세 분류로 통구스어군·몽골어군·투르크어군인데, 한국어는 통구스어군에 가깝지만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 지역은 黑龍江省과 內蒙古自治區의 다위얼족자치기에 있는 마을들을 답사하였으며 구체적인 마을의 상세 주소는 <표 1>과 같다. 조사시 마을에서 가장 전통적인 민가의 원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옥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 1. 다위얼족 거주지 주소

마을 주소
黑龍江省 齊齊哈爾市 梅里斯 雅爾塞村
內蒙古自治區 莫力達瓦旗 阿爾拉鎮 庫如奇鄉
內蒙古自治區 莫力達瓦旗 阿爾拉鎮 阿爾拉村
內蒙古自治區 莫力達瓦旗 阿爾拉鎮 哈力村

### 2.2. 조사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주로 현지조사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실측을 통해 배치도 및 평면 채취를 하고, 이와 더불어 심층면접과 현장에서의 관찰을 병행하였다.

또한 전통민가의 원형 파악을 위한 전문가 면담 및 고증된 문헌 자료를 보조적으로 이용하였다.

## 3. 다위얼족 주거의 형태적 특성

다위얼족의 집은 길에서 보면, 그 배치 형태나 건축양식이 인근에 있는 다른 한족민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구조를 조사하면 한족과 구별되는 독특한 건축양식을 발견할 수 있다.

### 3.1. 취락 특성 및 배치 형식

다위얼족은 전통적으로 같은 씨족이 마을을 이루어 살았는데, 조사 마을은 공통적으로 마을 뒤쪽으로 산을 두고 마을 전체가 남향을 하며, 하천을 옆에 둔 평지에 있다. 거주지에 대한 이런 특징은 오래 전부터 다중경영을 했던 다위얼족의 경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일찍이 정착하여 농경을 했던 민족이지만 수렵과 어렵, 목축을 병행하였으므로, 생산과 생활의 편리를 위한 자급자족의 자연경계가 마을 부지의 조건을 결정한 것이다. 취락의 전체적인 외관은 각 집마다 가옥의 양옆으로 일정 면적의 밭을 갖고 있고 각 가옥은 남향을 하고 있어 전체적

으로 질서 있게 일렬로 늘어서 있다.

각 가옥은 이웃집과 인접하여 배열되어 있으므로 가옥 간에는 울타리를 쳐 경계를 짓는데, 전통적으로 울타리의 재료는 그 집의 빈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전통적인 마당의 구성은 집, 창고, 방앗간, 가축우리로, 북측 가운데 정방이 있으며, 정방 양측에 상방, 창고, 방앗간이 놓이게 된다.(그림 1) 그리고 마당의 동남, 서남, 동북, 서북으로 가축우리를 설치한다. 그러나 이것도 빈부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지며, 현존하는 다위얼족 민가는 상방이 없이 정방과 창고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그림 2)

### 3.2. 건축 구조 및 재료

다위얼족의 집은 동북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지붕 흙집과 구별되는 맞배지붕의 초가를 짓는다.<sup>4)</sup>

정방의 칸수는 2칸, 3칸의 두 종류가 있는데, 과거에 부유한 다위얼족 주거에는 5칸도 있었다고 한다. 소나무 기둥을 60~90cm 깊이로 묻고, 5개의 보가 있다. 벽은 다위얼어로 “塔頭”<sup>5)</sup>이라 부르는 흙벽돌을 쌓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 만든다. 3칸집은 중앙칸에 출입구를 내고 2칸집은 동쪽칸에 출입구를 낸다. (그림3, 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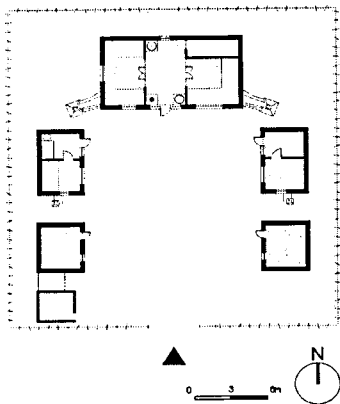


그림 1. 전통적인 다위얼족 민가배치도  
(齊齊哈爾市 梅里斯 다위얼족 민속촌 실측 자료)

- 4) 達斡爾資料集 3, 民族出版社, 1996년 1월, p.181
- 5) “塔頭”는 만들기 위해서는 풀을 짧게 잘라 층층히 풀과 흙을 섞는다. 물을 넣고 반죽한 후 10시간 이상 두어 흙과 풀이 서로 붙도록 한 후 다시 반죽하여 벽돌크기의 틀에 부어 찍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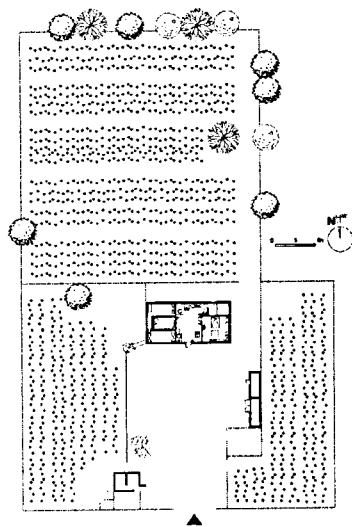


그림 2. 敖守元 가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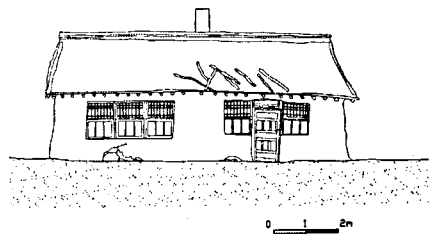


그림 3. 敖常義 가옥 남측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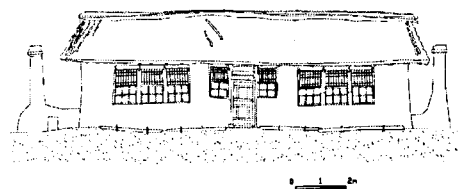


그림 4. 孟寶永 가옥 남측 입면

입구가 있는 칸은 부엌인 외옥(外屋)이고, 외옥 옆으로 캉(炕, 구들)이 있는 서옥(西屋)과 동옥(東屋)이 실내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실내문은 검은 자작나무와 잣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각종 도안을 새긴다. 캉벽(炕牆)도 검은 자작나무로 만들며 그 위에 도안을 한다. 그리고 실외 동서 양측에 두개의 굴뚝이 있어 부뚜막에서 피운 연기가 캉을 지나 굴뚝으로 나가게 한다. 보

통 바닥과 천정에 나무판을 대는데, 여유가 없는 집은 나무판을 깔지 않고 흙바닥으로 둔다.

다위얼족의 집은 창이 많은 것이 독특한 특징인데, 2칸집은 남쪽 벽에 세 개의 창을 내고, 서쪽 벽에 2개의 창을 낸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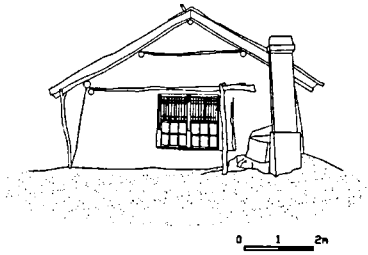


그림 5. 孟寶永 가옥 서측 입면

또한 외옥의 출입구 양쪽에 하나씩 내서 총 7개의 창을 낸다. 3칸 집에서는 동옥의 남쪽 벽에 3개의 창을 더해서 총 10개의 창을 낸다. 각 창은 십자로 된 틀을 만들고 창호지를 틀 밖에 바른다. 창의 구조와 모양은 중국 동북지역의 대부분의 민가와 비슷하지만, 서쪽에 창을 내는 것은 다위얼족만의 독특한 양식이다. 이 서쪽의 큰 창을 “懷瑪爾”라고 부르는데, 창을 내는 이유를 현지의 다위얼족들은 채광과 통풍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sup>6)</sup>

#### 4. 다위얼족의 주생활과 공간기능

다위얼족의 정방은 크게 출입구가 있는 외옥(外屋)과 가족의 주요 생활공간인 칸이 있는 방(西屋 및 東屋)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한족의 함원식 구조에서 당옥과 와실의 구성과 비슷하지만,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6) 다위얼족의 서창을 과거 요나라의 거란족의 주택과 연관시키는 견해가 있는데, 거란의 대부분의 집들은 동향이었는데, 남쪽 햇빛을 받기 위해 측벽인 남쪽에 창을 내게 되었다가 그것이 나중에 점차적으로 남향집으로 변하게 되면서 남쪽창도 서쪽창으로 변하여 남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서창의 존재는 다위얼족이 거란의 후예임을 증명해주는 한 예로 설명된다.

#### 4.1. 외옥(外屋)

다위얼족의 외옥은 3칸집은 가운데실, 2칸집일 경우 동쪽방이 되며, 그 기능은 마당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통로기능을 하지만 실의 주용도는 부엌이다. 따라서 외옥에는 기본적으로 부뚜막이 있고, 3칸집인 경우에는 동서 양측에, 2칸집은 서쪽 칸벽에 칸과 연결되는 부뚜막을 설치한다. 그 외에 부뚜막 주변으로 수도와 식기장, 물항아리, 조리대 등이 있는데, 취사와 관련된 주생활재로 외옥은 단순히 부엌의 기능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족의 당옥이 취사를 비롯한 식사, 손님접대 등의 대부분의 일상생활과 제사의 의례적인 생활까지 이루어지는 가족생활의 중심공간인 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점이다.

#### 4.2. 서옥(西屋)과 동옥(東屋)

서옥과 동옥은 화려한 壽字, 喜字, 吉祥매듭 등의 조각을 새긴 외옥과 나뉘는 여닫이문인 “隔扇”을 통해 들어간다. 서옥은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공간이므로 연장자가 거주하게 된다. 서옥을 상옥(上屋)으로 하는 습속은 한족 주거에서 동쪽이 서쪽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 동옥을 상옥으로 했던 체계와 명확한 차이를 갖는다.

서옥을 칭하는 명칭은 다위얼어로 “博德格日”라고 부른다. 서옥은 남북서의 삼면이 높이 90cm의 칸<sup>7)</sup>으로 둘러있는데, 특히 서칸(西炕)에는 가족이 모시는 집안의 신을 모시는 신위를 놓으므로 공간의 성격이 기능적이기 보다는 상징적이다. 서칸을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습속은 만족과 같다. 조사 민가의 대부분은 이러한 과거의 엄격한 습속은 많이 사라져 개조를 통해 서칸의 폭을 줄이거나 아예 서칸이 없는 민가도 많았다. 남칸(南炕)은 가장 상석(上席)으로 집안의 연장자가 이곳에서 잔다. 북칸(北炕)은 그보다 손아랫사람이 자는 곳이 되지만, 가족수가 적거나 동옥에서 자녀 부부가 잘 경우, 북칸은 가사작업을 하거나 곡식을 말리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7) 이러한 칸을 “完子炕” 혹은 “卍字炕” 혹은 “万字炕”이라 부르는데, 평면의 세 방향으로 난 칸과 굴뚝으로 연기가 지나가는 경로의 모양을 따 부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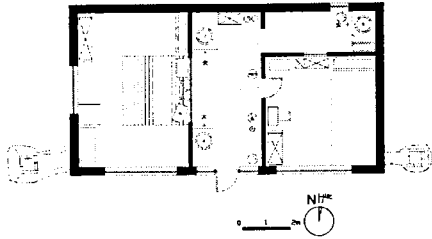


그림 6. 孟寶永 가옥 평면도 : 3칸집으로 중앙칸 인 외옥은 부엌이며 서옥은 벽을 따라 ㄷ 자칸(만자칸)이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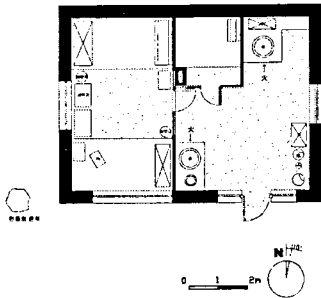


그림 7. 敎常義 가옥 평면도 : 2칸집으로 동쪽칸 이 외옥이고 서옥이 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서옥에는 남북으로 칸이 놓여 있고 서칸은 개조후 사라졌다.

칸은 가족들이 잠을 자는 취침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손님 접대와 가사작업, 식사 및 단란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는 동북 지방의 추운 기후로 인해 외옥은 단순히 취사 기능만 하게 되고, 칸이 있는 실내, 특히 서옥은 취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족 생활의 중심공간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서옥과 동옥의 실내는 남쪽의 큰 창과 측벽에 난 창 때문에 낮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 오게 되어 전체적으로 밝고 개방된 분위기이다. 이것은 한쪽의 와실이 남쪽벽에 작은 창만으로 빛을 받아 전체적으로 어두워 당과 와실을 “일명양암(一明兩暗)”의 공간이라 일컫는 것과 대조되는 점이다.

실내의 생활 가구들은 칸의 양쪽 끝에 배치하는데, 실내의 가구 배치는 특수한 규정이 없고, 침구나 의류를 보관하는 궤 등은 일반적으로 칸

의 한쪽에 놓으며, 그 옆으로 TV와 장식장 등을 놓는다. 기거양식은 주로 칸 위에서 생활하므로 한쪽의 입식생활과 비교되는 좌식에 가깝지만 실내에서는 신을 벗지 않고 다니며, 신을 벗지 않고 칸 위에 걸터앉거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테이블과 의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동옥(東屋)은 연도가 지나가는 내부칸(마이)를 설치하여 남북으로 소옥(小屋)을 만드는 예가 많다. 서옥과 인접하여 외옥의 일부 공간을 소옥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옥은 규모가 작으므로 거의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그림 8. 敎守元 가옥 평면 : 서옥은 ㄷ 자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반해 동옥은 개조가 많이 되어 칸이 없으며 침대와 테이블을 놓고 생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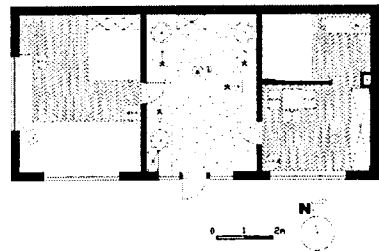


그림 9. 武如根達來 가옥 평면 - 3칸집으로 외옥에는 서옥과 동옥의 칸과 연결되는 부뚜막이 3개 놓이며, 서옥의 서칸쪽은 개조 후 줄여 전통적인 서칸의 상징적 의미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동옥은 화장(火牆)이 있는 벽을 설치해 남북으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8) 이를 화장(火牆)이라 하는데, 동북지역에서 나타나는 난방방식으로 벽돌로 만든 장방형의 이중벽 사이에 열기를 관통시켜 벽자체를 난방하는 방법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국 동북지역 소수민족의 ‘거주문화’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 연구의 일부로 동북지역 소수민족 중 다위얼(達斡爾)족의 주거 및 주생활 특성을 보고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지조사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실측을 통해 배치도 및 평면 채취를 하고, 이와 더불어 심층면접과 현장에서의 관찰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위얼족 민가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면 취락은 각 가옥이 남향을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질서있게 일렬로 배열되어 있으며, 마당의 배치형식은 중앙의 정방을 중심으로 그 밑으로 동, 서 상방과 창고 및 방앗간이 나란히 병행하여 배치되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민가의 배치양식은 만주 주거와 유사하다.

둘째, 다위얼족 민가의 건축 양식 중 외관상 드러나는 독특한 점은 동북지방의 다른 민가와 달리 서측벽에 창을 내고, 창의 개수가 많고 크기도 커서 실내가 밝고 개방적이라는 점과 실내 장식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생활 공간의 기능을 보면 한족 주거와 더욱 많은 차이를 갖는데, 그 중 하나가 외옥이 한족의 당옥처럼 생활중심공간이 아닌 취사기능

만을 담당하는 부엌으로서의 기능만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추운기후로 인해 모든 일상, 비일상 행위가 칸이 있는 실내 즉 서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내 중에서도 칸 위에서의 생활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온돌 중심의 한국의 생활 습속과 비교해 볼 만하다. 또한 동쪽보다 서쪽을 더 귀하게 여겨 서옥이 상옥이 된다는 점도 한족과 상반되는 특징이다.

이상 본 연구는 다위얼족의 주거 및 주생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한족 주거와 비교하여 접근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한족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 주거와의 영향관계 및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윤정숙(2000), 중국동남부지역 민가의 주공간 구성과 기능, 한국주거학회 제11권, 제2호
2. 達斡爾資料集 編寫組(1996), 達斡爾資料集, 民族出版社
3. 杜青發(2002), 莫力達瓦達斡爾族自治旗情, 內蒙古文化出版
4. 莫力達瓦達斡爾族自治旗概況編寫組(1985), 莫力達瓦達斡爾族自治旗概況, 內蒙古人民出版社